

#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전국 홍보

### 시, 인천 ‘드론·UAM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레이싱트랙 모형 등 설치 10월 개최 앞 부대행사 등 안내

남원시가 10월 개최되는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 미래항공 모빌리티·드론 레저스포츠 엑스포’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제4회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주최)에 참여해 챔피언십과 엑스포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2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홍보는 행사장에 마련된 ‘남원시관’에서 이뤄진다. 남원시관에는 VR체험, 레이싱트랙 모형, 마스코트 조형물, 포토존 등이 설치돼 있다.

10월6일부터 9일까지 남원에서 개최되는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국제항공연맹 (FAI) 주관 드론 스포츠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참가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개인종합, 주니어, 여성 부문에서 총 상금 10만 달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2018년 1회, 2019년 2회 대회가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최 드론 관련 박람회



남원시가 ‘제4회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여해 ‘2023 남원 FAI 세계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중 최대 규모인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 레저스포츠 엑스포’도 챔피언십 대회 기간에 맞춰 함께 개최된다.

엑스포에는 해당 분야 관련 기업, 지자체, 관계 기관, 학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드론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드론축구, 컨퍼런스, K-POP콘서트, 각

종 체험 행사 등도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0월에 열리는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를 인천에서 알리게 됐다”면서 “이번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기간 동안 남원을 전국에 열심히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민·관 합동 국토대청결운동

### ‘청결 도시’ 이미지 각인...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비 활동

고창군이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2023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기관·단체·주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고창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정립을 통해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일

로 정하고 중점관리구역 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더운 날씨와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 깨끗한 고창 만들기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기관·사회단체 회원분들과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국토대청결 행사를 통해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뱀장어·메기 치어 방류 ‘하천 살리기’



정읍시 관계자들이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동진천에 뱀장어와 메기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자연생태환경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7일 동진천에 뱀장어 치어 8000마리와 메기 치어 38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뱀장어와 메기 치어를 대상으로 종자를 선별해 방류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식, 토종어류 보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방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지속되는 방류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방류효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활환경을 잘 보존하고,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보호어종 및 어린물고기 기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감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야외 운동기구 안전 관리

### 정읍시, 1932개 기구 점검

정읍시가 지역 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현황 파악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행정기관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정읍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역 내에는 683개소에 양팔줄당기기, 허리돌리기, 상체근육풀기, 물걸타기, 하늘건기, 등 지압기,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총 1932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시는 현황 파악과 함께 이용에 위험 요인은 없는 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거꾸리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후 미끄럼 방지 시설과 함께 바닥에 매트 등의 충격 완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운동기구마다 주의 안내문도 부착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각종 야외운동기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토종복분자 생산·유통 활성화 협력



고창군이 고창 토종복분자 생산과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고창군은 베리팜영농조합법인(대표 박재숙)·토종복분자협동조합(이사 오영은)·(주)황토메기유통(대표 송진희)·(주)비엔텍(대표 김진석)과 함께 토종복분자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토종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은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됐으며,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고창 토종복분자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엔텍은 나주시에 소재한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김진석 대표이사는 고창군 토종복분자를 적극 구매해 제품개발은 물론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내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기업인 비엔텍과 고창군 관내 판입체인과 생산단체가 다년간 상생협력을 통해 고창군 토종복분자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명인에게 배우는 ‘남원 옷칠·같이’

### 6월 5일~11월...수강생 모집

남원시가 ‘2023 남원시 옷칠·같이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4년부터 목공예 신규 인력 양성 및 전통기술의 전승·발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옷칠·같이교육’은 도무형문화재 옷칠장 박강용 선생(옷칠 고급반), 대한예술명인 이진무 선생(같이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해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뤄진다.

올해 교육은 2개분야(옷칠, 같이분야) 6개과정(옷칠 초급·중급·고급, 같이 초급A·초급B·중급)

으로 구성됐으며, 6월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옷칠공예관 및 가방뜰 옷칠공예교육센터 등에서 매주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정원은 각 과정별 5~12명으로, 초급반은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중급반 이상은 이전단계 수료자 또는 동등자격 보유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재료비는 수강생 실비 부담), 교육 신청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31일까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